

## 안 전 제 일



## 민 철 기

산업현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안전 제일”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진가를 발휘할 때는 지금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것은 사고예방 차원이나 비용절감면에서 이 의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안전 제일”이라는 슬로건이 언제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20세기 초 미국 굴지의 철강회사 사장인 케리씨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옳은 듯하다.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어서 대량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자 산업사회에서의 인간과 기계 사이의 주종 관계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즉 산업혁명 이전의 가내공업에서 갑자기 공장공업으로 전환하면서, 그 전까지는 기계의 주인이고 강력한 통제자였던 인간이 산업혁명 이후 기계의 노예(?)가 되어가는 듯한 착각속으로 빠져드는 상황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이것은 산업혁명 이전에는 간단하고 규모가 작은 기계의 주인으로서 별로 위협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유자재로 이

를 조정하고 자신의 생산 목적에 활용해 왔으나, 혁명 이후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동력이 비대화 되면서 기계의 규모나 생산용량 역시 대규모화 되었다는 데에 기인한다.

초기의 대량 생산 체제에서는, 소비자에게 공급할 상품의 생산에 급급한 나머지 기계의 안전 장치나 보호 장치 같은, 사고 예방에 반드시 필요한 장치의 부착에는 매우 인색했고 또한 능력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대형 기계나 장비에 의한 사고도 점차 많아지고 치명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경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적인 문제로 까지 비화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생한 슬로건이 바로 “SAFETY FIRST” 즉 “안전 제일”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오늘날 이 “안전 제일”이라는 표어는 어느 공사장이나 작업장을 막론하고 약방의 감초 격으로 꼭 붙어 있음을 보게

된다. 이 낱말 속에는 모순성도 없지 않아 때로는 업무 처리 도중 고소(苦笑)를 금치 못할 때도 한두번이 아니다.

어느 익살스러운 작업자는, 안전 제일을 백퍼센트 지키려면 작업을 중단하고 쉬고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과연 맞는 이야기이다. 작업을 하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으면 사고를 면하는 경우를 안전 수칙을 통해서 알게 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허리 다침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건을 들어올릴 경우 무게를 제한해 놓은 업체들이 많다. 이 때 남자 작업자가 혼자서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를 25kg으로 제한해 놓았다면 이보다 훨씬 무거운 물건을 취급해야 할 경우, 이 작업자가 취할 행동을 연구해 봄으로써 이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안전수칙상 이 작업자가 취할 행동은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다음 조치를 기다리는 것이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작업자의 허리를 다치게 하면서까지 생산성(?)을 높일 이유는 아무데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생산하지 않고 작업을 중단하면서 안전 제일을 지킨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다.

이 표어는 사고가 많이 늘고 또 대형 화환에 따라 작업자를 사고로부터 보호 하자는 뜻에서 창안된 것이므로 그 깊은 뜻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사이에는 경영학에서도 안전 제일이란 주장을 강변하기에 앞서, “우리의

경영주는 생산 못지 않게 종업원 여러분의 안전에도 깊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라는 한결 부드럽고 힘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매우 낙관적인 신문 기사를 통해 호뭇함을 느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 들었다는 것이다. 계수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그래프상의 곡선이 하향하여 좋은 징조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데에 큰 뜻이 있는 것이다. 한번 방향이 잡히면 계속 그쪽으로 움직여감이 하나의 추세이기 때문이다.

교통안전의 지표가 좋아지면 산업 안전, 건설 안전의 측면에서도 좋은 지표를 보여주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도 크다. 건설현장에서의 사고 추이는 좀체로 그 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들었지만, 이것도 어느 뎡가를 고비로 좋은 방향으로 선회할 것임을 굳게 믿고 싶다.

안전관리의 성패 여부는 원래 사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후생복지 관(觀)에 크게 좌우된다. 무식하고 비인간적인 사업주는 종업원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법적인 보상금만 지급하면 깨끗이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이는 큰 잘못이다. 사고로 인해서 생산 인력에 큰 차질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고 때문에 오는 작업자의 사기 저하는 보이지도 않으며 돈 몇푼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크나큰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필자=안전전문가>